



Hello! My name is Sister Mary Lucilla Wertz. As the third of ten children in our family, I experienced community at an early age. When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September of 1955 from Blessed Sacrament Cathedral in Altoona, I was missioned to teach and arrived at my first assignment two weeks later. More surprises were in store, as I was appointed principal in subsequent years. I found myself serving across the United States – in the Dioceses of Greensburg, Pittsburgh, Baltimore, Phoenix and Tucson.

Over those years, I frequently recalled the many challenges that Mother Seton faced. Each challenge brought extensive blessings and an appreciation for our name, Sisters of Charity.

The highlight of these blessings was the call to experience life with our community in Korea. My five years at Somyong Convent immersed me in the spirituality and culture of our partner sisters. My teaching English conversation in the high school was nothing compared to the opportunity to explore my own deepening prayer life and to the appreciation of the blessings in both ministry and community.

(Some day, I hope to have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Korea.)



Upon my return to the United States, I was delighted to be asked by Sister Marlene to assist her at the Generalate in Chicago. There I had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the early experience of intercultural living involving our two Provinces.

Now I enjoy ministering at Caritas Christi as a sacristan and

in other ways as the needs of the community present themselves. This also includes assisting at DePaul Center and interacting with the dedicated staff there. I am deeply grateful to God – and to the community – for providing me with both generous blessings and creative challenges.





안녕하세요! 메리 루실라 워츠Mary Lucilla Wertz 수녀입니다. 저는 십 남매 중 셋째로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알투나의 성체 주교좌 성당Blessed Sacrament Cathedral 출신으로 1955년 9월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입회하고 바로 교사로 파견받아 2주 후에는 첫 파견지로 갔습니다. 그 후에는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어서 몇 년 만에 교장으로 파견을 받았고, 그린스버그, 피츠버그, 볼티모어, 피닉스, 투산 교구를 거치며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사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마더 씨튼이 직면했던 많은 도전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 도전을 통해 큰 축복을 받았고 사랑의 수녀라는 우리 이름에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중 최고의 축복은 한국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았던 체험이었습니다. 소명 분원에서 지낸 5년 동안 우리의 동반자인 한국 수녀님들의 영성과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깊게 하고 사도직과 공동체 안에서 받은 축복에 감사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 시간에 비하면 고등학교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문말린 수녀님으로부터 시카고 총원에서 수녀님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총원에서 우리 두 관구가 함께 하는 초기 상호문화적 삶의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까리타스 크리스티에서 제의실을 담당하고 있고, 공동체의 필요에 여러 방식으로 함께 하며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국 관구의 행정관인 드 폴 센터De Paul Center에서 협조하면서 헌신적인 직원들과 함께 하는 일도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과 새로운 도전을 주신 하느님과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